

# 제주도와 琉球·沖繩 신화 비교 연구의 검토와 전망

정진희\*

## <차례>

1. 머리말
2. 琉球·沖繩 신화 비교 연구의 흐름
3. 琉球·沖繩 신화에 대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
4. 제주도과 琉球·沖繩 신화 연구의 비교신화학적 과제
5. 메타 신화학적 과제와 담론적 확장 가능성
6. 맺음말

## 국문요약

제주도와 琉球·沖繩의 신화에 대한 비교 연구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琉球·沖繩의 역사와 그 신화 자료의 전승 맥락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오독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 두 지역 신화의 비교 연구 과제는 琉球·沖繩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전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琉球·沖繩은 도서 지역이라는 환경적 공통점과 외부의 권력에 의해 주변부화된 지역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조건이 성립된다. 이러한 조건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고는 島嶼 신화학, 마을 공동체 신화학, 무속 신화학 측면에서 향후 두 지역 신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중심과 주변의 역학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메타 담론으로서 두 지역 신화 연구사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주도과 琉球·沖繩 신화의 비교는 두 지역 신화의 본

\*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의교수

질적 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도서 지역이면서 동시에 주변화의 역사를 겪어 온 지역의 신화에 대한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신화, 비교, 제주도, 琉球, 沖繩, 도서 신화학, 마을 공동체 신화학, 무속 신화학, 메타 신화학, 식민주의, 중심, 주변

## 1. 머리말

한국 신화를 다른 지역의 신화에 견주어 고찰하는 비교 연구의 방법은 한국 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주지하다시피 비교는 대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위상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연구 방법인바,<sup>1)</sup> 한국 신화의 특징은 유사해 보이는 다른 지역 신화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특수성과 보편성이 부각될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신화의 연구에서 ‘비교’의 방법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sup>2)</sup> 새삼 당연해 보인다.

비교의 방법에 의한 한국 신화의 연구는 서대석의 선행 연구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sup>3)</sup> 서대석은 신화 비교 연구의 목적이 한국 신화의

1) 한창훈,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2009, 248면.

2) ‘비교’가 한국 신화 연구의 주된 방법론 중의 하나로 자리하게 된 경향에 대한 지적은 최원오, 「신화·서사시 연구의 반성과 전망」, 『구비문학연구』15,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참조.

3) 서대석의 신화 비교 연구는 서대석, 「한국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회, 1992; 서대석, 「동아시아 영웅신화의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11, 한국구비문학학회, 2000;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등을 참조할 것.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데 있다는 전제 하에,<sup>4)</sup>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지역 신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양상을 드러내고 그러한 양상의 이유를 역사나 문화 또는 생활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밝히려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만의 특수성이 더욱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5)</sup>

서대석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듯, 초창기의 비교 연구는 한국 신화가 타지역 신화에 비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비교 연구는 점차 신화에 대한 ‘이론’의 확립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집단적으로 창조·향유·전승되는 갈래라는 점에서 신화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치적 승패와 신화의 풍흉 간의 관계를 구비서사시의 통시적 전개 양상을 통해 이론화한 조동일의 선구적 업적은<sup>6)</sup> 그 기념비적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조현설 역시 이전의 비교 연구가 ‘동차를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하고,<sup>7)</sup> 신화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일반 이론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sup>8)</sup>’을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비교를 통해 입증해 보였다.

이론화에의 지향과 더불어 신화 비교 연구의 한 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비교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동일은 근대적 민족 국가가 은폐해 왔던 ‘탐라’의 독자성을 ‘발견’하여 제주도 신화를 신화 비교의 독자적 단위로 확립한 바 있고, 아울러

4) 서대석, 『구비문학의 비교문화적 연구과제』,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참조.

5) 위의 글, 23면 참조.

6)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a.

7)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18-19면.

8) 위의 책, 19면.

일본 내부의 ‘아이누’ 및 ‘琉球’의 신화도 독자적인 비교 단위로 설정하였다.<sup>9)</sup> 중국 소수민족과 더불어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 안에서 그 존재가 지워졌던 집단의 신화가 부각되면서, 근대적 국가 혹은 민족 단위가 아니라 좀더 세분화된 집단의 신화가 비교의 대상으로 확장·심화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확장된 비교의 대상 중에서 琉球 신화에 대한 고찰은 김현선에 의해 주도되어 왔는데,<sup>11)</sup> 유독 제주도 신화가 그 비교 대상으로 특화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일련의 비교 연구가 진행될수록, 특히 제주도와와의 비교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신화와 琉球·沖繩 지역 신화<sup>12)</sup>의 비교가 비교 신화학에서 효과적인 비교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 역시 제주도 신화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를 비교하

9) 구체적인 연구 저작은 조동일, 앞의 책 참조. ‘탐라’의 존재를 은폐해 온 ‘國史’의 ‘악랄한 식민지사관’에 대해서는 조동일, 『국사를 넘어선 역사 이해의 열린 시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b 참조.

10) 이러한 연구 경향은 조동일의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 1997)에서 촉발된 바가 크다. 이 책의 출간 이후,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속출하였다. 이경애, 『제주도와 아이누의 영웅서사시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4, 2000; 김현선,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세계의 창조신화』, 신화아카데미 지음, 동방미디어, 2001; 김현선,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미륵과 석가의 대결 신화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21, 한국고전문학회, 2002a;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초공본풀이』와 엄미 『사송검』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10, 국립민속박물관, 2002b; 김현선, 『제주도와 아이누의 구비서사시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c;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김현선, 『제주도와 충승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2008 등.

11) 각주 10)에 열거한 김현선의 논문 참조.

12) 여기에서 琉球·沖繩 지역이란, 아마미 제도(奄美諸島), 오키나와 본도(沖繩本島) 및 그 이도(離島), 미야코 제도(宮古諸島), 아에야마 제도(八重山諸島)로 이어지는, 호상(弧狀)으로 분포되어 있는 도서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을 ‘류큐’나 ‘오키나와’라 명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한계(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 1절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임시적으로 琉球·沖繩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여 동아시아 중세 왕조에 편입·복속된 지역의 신화가 재편·변이되는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상관 관계에 대한 일반론의 일단을 마련한 바 있다.<sup>13)</sup>

신화 비교 연구의 초점이 이론의 확립에 맞추어지고 있는 현재의 연구 경향을 고려할 때, 제주도과 琉球·沖繩 신화의 비교 역시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과 경향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두 지역 신화의 비교가 신화 일반론의 확립과 아울러 제주도 신화에 대한 이해의 심화에 이를 수 있도록 선결해야 할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두 지역 신화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수준과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재검토하여 현 단계 비교 연구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경향성 및 연구 방법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신화 일반 이론의 확립을 염두에 둔 향후 논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볼 것이다.<sup>14)</sup>

13)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a 참조. 이 연구의 연구사적 맥락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같은 글, 9-13면 참조.

14) 필자는 제주도 동부 구좌 지역의 말을 모국어로 배웠으며 한국어로 ‘생각하고 쓰기’를 배운 연구자로서 제주도 신화를 고찰해 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감과 이질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 대상을 琉球·沖繩의 신화로 확대해 왔다. 본고에서 설정되는 향후 비교 연구의 방향성에는 이러한 필자의 ‘운명적 처지’에서 비롯되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시되는 연구 과제는 연구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중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며, 과제 제시의 시각 역시 다양한 시각들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의 모든 연구 과제와 가능성을 제시해야만 본고가 내건 제목에 값하는 글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모든 가능성을 열거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 나는 작업일 뿐더러, ‘논문’ 아닌 ‘개론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 2. 琉球·沖繩 신화 비교 연구의 흐름

### (1) 전파론에서 본질론으로

비교의 연구 방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는 제주도 신화의 전파 양상과 신화적 계열을 밝히는 계통론적 연구 저작에서 소개된 바 있다. 현용준은 제주도의 <三姓神話>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地中湧出과 箱舟漂着, 신분 서열 화소 등이 琉球 왕조의 창세 신화나 오키나와 여러 지역의 구비 전승에서 발견된다고 소개한 바 있다.<sup>15)</sup> 이른바 ‘남방계통’의 화소들을 공유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주도 신화의 계통을 밝히려 한 것이다.

琉球·沖繩 신화에 대한 전파론 혹은 계통론적 접근은 한국 신화와 비교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박종성은 한국 무속 서사시에서 발견되는 미륵과 석가의 경쟁담이 琉球의 宮古島, 輿論島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한반도 <창세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6)</sup> 한편, 김화경은 喜界島와 奄美大島에서 무조(巫祖) 신화로 전승되는 <오모이마쓰가네 신화(思松金神話)>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북방 아시아의 샤머니즘 문화가 한국을 거쳐 파급된 것이라고 보았다.<sup>17)</sup>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파론이나 계통론적 관점에서의 비교 연

15)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초출:『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2,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3.)

16) 박종성, 『한국 창세신화와 일본신화』,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참조.

17) 김화경, 『한·일 신화의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이 글에서 김화경이 일본 신화의 일부로 보고 있는 <오모이마쓰가네 신화>의 전승 지역은 喜界島와 奄美大島이다. 이 지역은 현재 일본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오키나와 현이 아니지만 문화·역사적으로 琉球·沖繩 권역으로 포괄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琉球·沖繩 지역 신화와의 선행 비교 연구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구는 한국 및 제주도의 신화와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모티프를 영향과 전파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논의의 내적 정합성은 차치하고, 이러한 논의는 전파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가설이나 추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는 신화적 화소의 소중래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설령 과거 한반도와 류큐 열도 사이의 교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이러한 가설이나 추론이 사실로 확립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연구의 시각이 전파론이나 계통론에 치우치면 신화에서 역사를 찾는 것 이상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화 장르 자체의 본질에 접근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琉球·沖繩 신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 김현선은 전파론적 전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박종성이 전파의 증거로 든 미륵과 석가의 대결 화소에 대해, 김현선은 화소의 직접적 전파보다는 ‘불교 경전권의 동질성’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sup>18)</sup> 신화의 유사성을 역사적 조건이나 환경의 유사성에 따른 동질성으로 보고, 토착적 신화소가 외래 종교 및 사유의 침투 후에 어떤 양상을 거쳐 다시 토착화되기를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sup>19)</sup> 무조(巫祖) 신화에 대한 자매편 성격의 세 편의 논문<sup>20)</sup>에서도 전파는 배제된 채 무조 신화와 관련 의례가 비교되고 있으며, 현상 비교의 결과를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반복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김현선, 앞의 글(2002a), 302면 참조.

19) 위의 글 참조.

20) 김현선, 앞의 글(2002b); 앞의 글(2003); 앞의 글(2008) 참조.

요컨대 이러한 연구 경향은 琉球·沖繩 신화는 그것대로 살피되, 유사한 ‘조건’에서의 한국 신화 혹은 제주도 신화는 또 그것대로 살핀 후 그들을 비교하여 신화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연구 경향은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 있는 조동일의 선구적 업적인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의 연구 방법론과 상통하며, 신화에 대한 ‘통시적’이고 ‘이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조현설의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전파론이나 계통론보다는 신화라는 장르의 ‘본질’을 밝히려는 ‘본질론’이, 현 단계 琉球·沖繩 신화에 대한 비교 연구의 대표적 논리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 신화와의 비교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 위에서 좀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와 琉球·沖繩 신화의 비교 연구가 일반적 신화 이론의 확립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현재의 연구사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비교 연구 과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일본의 일부에서 독자적 비교향으로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주장은<sup>22)</sup> 이제 하나의 상식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허구’인가 아니면 ‘실체’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sup>23)</sup> 다만 분명한 것은, ‘단

21) 정진희, 앞의 글(2008a)도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에 놓인다.

22) ‘상상의 공동체’라는 용어는 두말할 나위없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것이다. 필자는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를 참조했다.

23) 이에 대해서는 마누엘 카스텔(정병순 옮김), 『정체성 권력』, 한울아카데미, 2008의 제1장 참조.



일 민족'으로 동질화할 수 없는 집단적 실체에 대한 '폭력적인' 동화나 포섭, 배제를 통해 동아시아의 근대적 국민 국가가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탐라'가 있는 한 반만 년 역사를 지닌 단일 민족 '한민족'은 허구이며, '琉球'가 있는 한 일본이라는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단일한 일본 민족'의 개념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해는 조동일이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을 관통하는 통주저음으로, 신화 비교의 단위가 근대적 국민국가 혹은 민족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만은 없음을 잘 드러낸다.

이에 따라 琉球·沖繩은 일본의 일부, 혹은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 비교항으로 '발견'되었다. 琉球·沖繩이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영위해 온 신화 전승 집단으로 자리하게 됨으로써, 그 신화가 독자적인 비교항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신화가 독자적인 비교의 단위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조동일의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에서 제주도의 구비서사시가 첫 분석 대상이 된 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편협한 시야를 넘어서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에서 琉球·沖繩 및 제주도의 신화는 각각 독자적인 전승 배경을 지니는 신화로서 동아시아 신화 세계를 구성하는 독립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 지역 신화의 비교 연구는 각 지역 신화의 특질을 드러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주도 신화와의 비교 연구 과제 역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3. 琉球·沖繩 신화에 대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

비교 연구의 목적이 신화 이론의 확립에 있다면, 그 이론은 ‘사실’들을 토대로 형성되어야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론’은 말 그대로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琉球·沖繩 신화에 대한 그간의 비교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했던 데서 초래된 몇몇 ‘오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오해들을 극복하고 대상의 실상을 드러내어야, 이론화를 위한 비교 연구의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노정되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비교 지역의 역사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 대상이 되는 신화 자료의 전승 맥락에 대한 것이다.

#### (1) 아마미제도(奄美諸島) 신화는 琉球·沖繩 신화인가

##### : ‘琉球·沖繩’의 지역적 범위와 琉球·沖繩史

현재 ‘沖繩(오키나와)’은 일본 열도의 최남단 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그곳이 과거에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을 구성했던 왕조의 하나인 ‘琉球’였던 까닭에 그간의 비교 연구에서는 ‘琉球’와 ‘沖繩(오키나와)’이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되곤 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역사를 고려할 때 ‘琉球’와 ‘沖繩’이 가리키는 지역적 범주가 늘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마미제도(奄美諸島)의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를 보자. 이곳은 1609년 사쓰마의 류큐 침공 이후 사쓰마번의 직할령이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지방 행정조직 상으로는 오키나와 현이 아닌 가

고시마 현에 속해 있다. ‘沖繩’이 현재의 ‘오키나와 현’을 지칭하는 것이 라면, 아마미오시마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sup>24)</sup>

그렇다면 아마미오시마를 비롯한 아마미제도의 신화를 ‘沖繩’ 신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 최남단 현 오키나와는 과거 일본이 독립 왕조 ‘류큐’를 병합한 결과로 생겨난 현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沖繩’을 현재 일본의 행정 구역이 아니라 과거 琉球 왕조의 지배 권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아마미제도의 신화를 琉球 신화 혹은 沖繩 신화로 수용하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sup>25)</sup>

그러나 琉球와 沖繩을 과거 류큐 왕조의 지배 권역으로 이해한다고 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미제도의 주도(主島)라 할 수 있는 아마미오시마가 류큐 왕조의 지배 하에 놓인 것은 157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sup>26)</sup> 결국, 아마미오시마를 비롯한 아마미제도는 과거 류큐 왕조의 지배 권역을 가리키는 琉球 혹은 沖繩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신화가 琉球 혹은 沖繩의 신화로서 대표성 혹은 일반성을 지니기 어렵다. 류큐 왕조의 지배 권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琉球나 沖繩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신화의 범주에 아마미 제도 지역의 신화를 포괄할 때에는, 반

24) 실례로 ‘오키나와’의 구비설화를 수록한 稻田浩二·小澤俊夫 編, 『日本昔話通觀』 26, 同朋舎, 1983에는 아마미 제도의 설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5) 일본 및 오키나와 학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南島’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구비설화집인 遠藤庄治·福田晃·山下欣一, 『日本傳説大系』15, みずうみ書房, 1989에는 오키나와 본도와 이도 및 사키시마(미야코제도와 아에야마제도를 통칭하는 용어)는 물론이고 아마미제도의 설화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해당 권의 설화 전승 지역으로 ‘남도’를 제시하고 있다. (‘南島’라는 용어에도 특정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감지되지만, 여기에서 상론하지는 않는다.)

26) 沖繩歴史教育研究會, 『琉球·沖繩史』, 東洋企劃, 2001의 연표 참조.

드시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류큐 왕조 때 수도 슈리(首里)가 자리해 있던 오키나와 본섬 및 부속 섬들에 대해 ‘사키시마(先島)’라 하여 구분되었던, 미야코 제도 및 야에야마 제도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미야코 제도와 야에야마 제도는 현재에도 오키나와 현의 일부이고 과거에도 류큐 왕조의 영토였지만, 각기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켜 오다가 16세기 초엽에 이르러 류큐 왕조에 복속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미 제도 지역에 비하면 이 두 지역은 류큐 왕조의 직접 지배 기간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오키나와 본섬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류큐 왕조에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신화 전승의 기반이 되는 의례의 성격도 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신화의 성격이나 내용도 같지 않다.

요컨대 琉球나 沖繩이 현재 오키나와 현을 지칭하던 과거 류큐 왕조의 지배 권역을 지칭하던,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그 권역 안에는 같은 이름으로 호명될 수 없는 독자적 성격의 지역이 병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마미 제도, 미야코 제도, 야에야마 제도를 류큐 왕조를 전제로 하는 ‘琉球’ 혹은 ‘沖繩’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琉球’를 ‘日本’이라고 호명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은폐의 기획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선행 연구에서는 ‘琉球’ 또는 ‘沖繩’이라는 명칭의 함의와 역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 측면에서의 주의를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김현선은 제주도 무조(巫祖) 신화를 琉球와 비교한다고 하면서 ‘琉球’와 ‘沖繩’을 별다른 설명없이 바꾸어 쓰고 있으며, ‘奄美(아마미)’의 신화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한편 미야코 지역의 자료를 더 들고 있다.<sup>27)</sup> 박종성이 ‘琉球’ 신화를 일본 신화로 다룬 것<sup>28)</sup>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

의 창세신화 범위를 억압받고 있는 소수민족에까지 확대한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sup>29)</sup>고 비판한 김현선이기에 이러한 부주의는 더더욱 아쉽다. 아마미제도의 자료를 ‘琉球’의 대표적 자료로 드는 것은, 김현선의 표현대로라면 ‘琉球’의 무조 신화 범위를 琉球 왕조에 무력으로 복속된 지역까지 확대한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받아 마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선의 사례에서 보듯 ‘琉球’와 ‘沖繩’의 혼용과 오용 및 비교 대상 선정의 부적절성은 문제의식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조동일의 선행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조동일은 미야코지마의 구비서사시 중 ‘仲宗根豊見親(나카소네토요미야) 아야고’를 ‘유구 왕국에 대항하는 민족 서사시’로 보았다.<sup>30)</sup> 미야코지마가 琉球 왕조에 복속된 지역이라는 역사적 정보<sup>31)</sup>가 이러한 해석에 일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야코지마가 琉球 왕조에 복속된 것은 이 ‘아야고’의 주인공인 ‘나카소네토요미야’가 琉球 왕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야고’를 琉球 왕국에 대항하는 미야코의 민족서사시로 본 것은 琉球와 미야코의 관계를 ‘복속’이라는 일면적 차원에서만 파악하고, 복속의 구체적 양상을 미처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야코지마의 복속 과정, 그 과정에서의 ‘나카소네토요미야’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위의 서사시가

27) 김현선, 앞의 글(2002b); 앞의 글(2003); 앞의 글(2008) 참조.

28) 박종성, 앞의 글 참조.

29) 김현선, 앞의 글(2001), 242면.

30) 조동일, 앞의 책(1997a), 176-178면 참조.

31) 조동일은 ‘궁고도와 유구의 관계’, 즉 미야코지마와 琉球의 관계는 제주도과 한국의 관계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지적한다. 조동일, 위의 책, 187면.

피지배 민족의 ‘저항시’로 해석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sup>32)</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를 제주도 신화의 비교항으로 선정할 때에는 신증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琉球·沖繩의 역사와 문화를 그 하위 문화권 단위-아마미 제도, 오키나와 제도, 미야코제도, 야에야마 제도-로나마 나누어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비교 대상 지역이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2) 미륵과 석가의 경쟁담은 대표적 창세신화인가 : 琉球·沖繩 신화의 전승 맥락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 중에서 처음으로 본격적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미루쿠’와 ‘사카’,<sup>33)</sup> 즉 미륵과 석가의 경쟁담이다. 김현선이 『한국의 창세신화』를 펴 내면서 ‘琉球島內 <宮古島神話>’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소개한 이래,<sup>34)</sup> 김현선과 박종성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에서 주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거듭 인용되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그 성격상 琉球·沖繩 지역에서 전승되는 대표적인 창세신화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신화가 신성성을 지닌 이야기라는 일반적 정의 위에 서면, 어떤 이야기가 신화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전승 집단이 그것을 신성한 이야기로 향

32) ‘나카소네 토요미야의 아야고’의 내용과 정치적 맥락에서의 의미는 정진희, 앞의 글(2008a), 60-68면 참조.

33) ‘미루쿠’와 ‘사카’의 일본어 표준 발음은 ‘미로쿠’와 ‘사카’이지만, 여기에서는 현지의 일반적 발음을 반영한 『日本傳説大系』의 표제어(‘ミルクとサーカ’)를 따라 ‘미루쿠’, ‘사카’로 표기한다. 예컨대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을 논할 때, ‘설문대 할머니’라 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34)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491-495면의 자료 참조.

유하고 전승하는가의 태도 여부가 중요한 준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야코지마의 창세신화가 무엇인지 판단해 보면, 각 마을 단위의 의례에서 전승되는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창세신화가 된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내용상 창세에 관한 구비전승을 창세신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미야코지마의 대표적 창세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 미야코지마 섬을 만들고 지상의 생물과 혼인하여 인물을 번창시켰다고 하는 내용의 구비설화가 대표적이다.

미루쿠와 사카의 경쟁담은 琉球·沖繩 지역의 광포 설화이기는 하지만,<sup>35)</sup> 그 성격은 일종의 문화기원 신화에 가깝다. 풍요로운 시대, 풍요로운 시공간을 일러 ‘미루쿠 유-’라고 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미루쿠 유-’의 기원에 대한 것이다. 일종의 문화기원 신화라는 점에서 넓게 본다면 창세 신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신화적 질서로 운위되는 코스모스적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창세가>에 비견될 만한 창세신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琉球·沖繩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여타의 미루쿠와 사카 이야기에 비해 그 줄거리가 다소 특이한, 예외적 각편이라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치카사야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 ‘치카사야란, 미야코지마에서 마을 의례를 거행하는 여성 사제를 가리키는 ‘치카사/쓰카사’와 ‘집’을 의미하는 ‘야[屋]’의 합성어로서, 미야코지마의 히라라 지역에서는 일종의 神堂이라고 할 수 있는 ‘하리미즈 우타키(漲水御嶽)’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35) 이 이야기의 채록 각편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정리는 정진희, 『류큐 열도의 미루쿠 설화와 민속적 배경』, 『류큐 열도를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 문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8b 참조.

하리미즈 우타키의 기원담으로는 이른바 ‘아래자’ 유형의 우타키 신화가 대표적이며,<sup>36)</sup> 이 우타키와 관련되는 유래담이나 영험담으로서 미루쿠와 사카의 경쟁담이 전승되어 채록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바야시가 채록했다는 이 자료는 도대체 어떤 성격의 자료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미야코지마의 강신무라 할 수 있는 ‘간가카랴(カンカカリヤ)’에 대한 연구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간가카랴’가 되기 위해서는 ‘마우’라고 하는 수호신을 받들어야 하는데, ‘간가카랴’가 처음 이 신과 접하게 될 때 신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흔하다. ‘간가카랴’가 ‘하리미즈 우타키’의 유래담을 미야코지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신에게서 들었다는 사례가 조사된 바 있다.<sup>37)</sup> 오바야시가 채록한 자료의 제보자인 ‘스나카와 마츠’<sup>38)</sup>의 신분 추적이 가능하다면 더욱 확실해지겠지만, 미야코지마의 신화 및 설화 전승 맥락을 고려할 때 위의 자료는 ‘미야코 사만인 간가카랴가 들은/말하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sup>39)</sup>

36) 遠藤庄治・福田晃・山下欣一, 『日本傳説大系-南島』, みずうみ書房, 1989의 채록 자료 참조. 平良市史編纂委員會 編, 『平良市史-第九卷 資料編7(御嶽編)』, 1994의 ‘漲水御嶽’ 항목에도 역시 그 유래담으로 아래자 유형의 설화와 함께 ‘古意角’, ‘姑依玉’을 시조로 하는 창세신화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후자의 창세신화는 1927년 慶世村恒任이 저술한 『宮古史傳』의 서두에 실려있던 것으로, 현재 구비전승의 실례를 찾기 어렵다. 역시, 하리미즈 우타키의 구비전승 신화는 인간과 뱀의 결합으로 시조신이 탄생한다는 아래자 유형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하위 유형과 각편 대비는 眞下厚, 『神婚神話傳承の形成-宮古漲水御嶽傳承を中心に』, 『聲の神話』, 瑞木書房, 2003 참조.

37) 佐渡山安公, 『シャーマンカ語る創世神話<宮古島>』, 『奄美沖繩民間文藝研究』 13, 奄美沖繩民間文藝研究會, 1990 참조. 여기에는 ‘히가 토요(比嘉トヨ)’라는 간가카랴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38) 김현선, 앞의 글(1994), 492면에서는 ‘테라가와 마시’로 표기하고 있으나, 원문을 확인하여 ‘스나카와 마츠’로 바로잡았다.

39) 물론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생각은 추론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여러 정황상 위의 자료는 미야코지마 지역의 설화 전승과 샤만으로 입무할 때 신에게서 듣는 이야기의 상관 관계를 논의하기에는 혹 적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자료이지, 미야코지마의 대표적인 창세신화 혹은 ‘유구’의 대표적인 창세신화로 논의되어야 할 자료는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대표적’ 창세신화로서 전제되어야 할 ‘보편적 전승’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미야코지마의 창세신화, 더 나아가 琉球의 대표적인 창세신화로 다룬다면, 자료의 전승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 성격과 위상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부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sup>40)</sup>

이러한 경우는 미야코지마의 ‘가리마타’라는 곳에서 전승되는 ‘마을의 역사’에 대한 신화적 서사시인 ‘니리’를 마을이 아닌 ‘미야코지마’를 대표하는 노래로 본 조동일의 사례<sup>41)</sup>에서도 발견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신화 자료의 전승 맥락을 고려하여 그것의 기본적인 성격과 위상을 판단해야 함에도, 자료의 전승 맥락에 대한 이해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부분적 오해이다.<sup>42)</sup>

‘보편적 이론 성립’은 비교 신화학의 중요한 한 목표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목표가 현상에 대한 ‘오해’를 변명할 수는 없다.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비교 대상이 되는 자료의 전승 맥락에 대한 이해를 축적함으로써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비

40) 琉球·沖繩 지역의 미륵과 석가의 경쟁담이 한국의 그것과 비교의 대상이 된다면, 연구의 초점은 유사한 화소가 한국에서는 창세에 대한 무속 서사시로 전승되는 반면 琉球·沖繩에서는 풍요의 기원 설화로 전승되는 양상을 규명하는 데 맞추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자료의 실상과 전승 맥락에 부합하는 논의라고 본다.

41) 조동일, 앞의 책(1997a), 174-178면 참조.

42) 정진희, 앞의 글(2008a), 167-173면 참조.

로소 의미있는 ‘보편적 이론’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琉球·沖繩 지역의 의례에서 구연되는 노래들은 정형성을 띤 운문으로 서사성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마을 공동체 등 집단적 공동체를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례에서 구연되는 의식요의 경우, 노래의 문면에서 신화적 ‘서사’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서사가 내재된 공동체의 의례가요는 미야코지마에서 전승되는 몇몇 사례 등에 국한될 뿐이며, 특수한 사례로서 아마미제도 지역에서 ‘유타’라는 개인적 사제자가 구연하는 <시마다테 신고>, <바산 나가레> 등의 서사시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의식요의 빈약한 서사성은 류큐 왕조의 의례가요라 할 수 있는 ‘오모로’<sup>43)</sup>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琉球 왕조의 창세를 노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모로 각편<sup>44)</sup>에서조차, 구체적 사건들이 순차적, 계기적으로 제시되는 선형적 서사가 문면에 드러난다고는 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제의 주변이나 제의 밖에서 설화 형태로 전승되는 신화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제주도 신화와의 비교를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전승 양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교 연구의 구체적 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비교 대상이 되는 琉球·沖繩 지역의 역사와 문화, 신화 전승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주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신화의 몰역사성을 전제하는 연구가 아닌 이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비교의 작업을 수행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43) 여기에서의 ‘오모로’는 琉球 왕조에 의해 편찬된 『오모로소시(おもろさうし)』 소재의 운문을 가리킨다.

44) 구체적 내용은 정진희, 『류큐 왕조의 아마미코 신화와 현대 구비전승』, 『국어문학』 42, 국어문화회, 2007 참조.

#### 4. 제주도과 琉球·沖繩 신화의 비교신화학적 과제

신화 비교 연구의 목적이 신화의 본질 구명(究明)에 있다고 할 때,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는 특히 제주도 신화와 비교될 때 신화 일반론의 성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다. 본고의 목표는 琉球·沖繩 지역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 신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비교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한국 신화 및 여타 지역 신화와의 비교 과제는 일단 괄호 안에 묶어 두고 제주도와 琉球·沖繩 지역 신화와의 비교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 (1) 도서(島嶼) 신화학

제주도와 琉球·沖繩 지역의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첫번째 조건은 무엇보다 두 지역의 환경적 조건이 섬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두 지역 신화는 섬 지역에서 전승되는 신화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데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신화는 단순한 환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전승하는 집단이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특정 지역 신화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종종 그 세계관이 언급되곤 하는 것은 이러한 신화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주도 신화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sup>45)</sup> 신화적 세계관을 밝힐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신화적 사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초월계의 구성 및 특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화에서의 초월계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천상(天上)이나 지하(地下) 같은 공간으로 구체화

45) 한창훈, 『제주도 무가 연구의 검토와 전망』, 『시가와 시가 교육의 탐구』, 월인, 2000.

된다. 그런데 제주도 신화에서는 초월계가 ‘바다’ 혹은 ‘바다 너머’로 설정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초월계 관념은 한반도 지역 신화에서도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sup>46)</sup> 그 출현 빈도나 중요도에서 제주도의 경우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바다’라는 초월적 신성 공간이 두드러지는 것이 제주도 신화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제주도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다’ 혹은 ‘바다 너머’의 초월계가 ‘섬’ 신화로서의 특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러한 초월계의 양상과 특징을 琉球·沖繩 지역의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군도(群島)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신화에도 ‘바다’/ ‘바다 너머’의 초월계-대표적으로 ‘니라이 카나이’라는 초월적 공간 관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섬 지역에서 전승되는 신화에 나타나는 ‘바다’/ ‘바다 너머’의 초월계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론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을 만하다.

지역에 따라 명칭이나 그 구체적 양상은 다르지만, 琉球·沖繩 지역에는 ‘바다’ 혹은 ‘바다 너머’로부터 오는 ‘내방신(來訪神)’ 관념도 찾아볼 수 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바다 너머로부터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관념되는 이러한 琉球·沖繩의 ‘내방신’은, 한 해에 한 번씩 제주도에 찾아와 바다에서 나는 여러 산물들의 종자들을 뿌려주고 간다고 하는 제주도의 ‘영등 할망’이나, 더 나아가 제주도의 본풀이 등에 보이는 입도 여신과 비견될 만하다. 이러한 신격의 비교 역시, 보다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바다’, 특히 ‘바다 너머’는 ‘초월계’라는 것 외에 또다른 의미를

46) 현용준, 『고대 한국민족의 해양타계관』, 앞의 책 참조.

지닌다. 섬 안에서 보았을 때, ‘바다 너머’에는 초월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공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를 보자. 제주도의 역사는 이러한 ‘바다 너머’의 인간 내지 정치 권력이 제주를 복속하고 지배해 왔음을 증언하며,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유래한 세계관이 제주 토착의 그것과 충돌했음을 알려 준다.<sup>47)</sup> 요컨대 ‘바다 너머’는 제주도를 ‘주변부’로 배치시킨 ‘중심’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지니는 것이다.<sup>48)</sup>

‘중심’에 의한 ‘주변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琉球·沖繩 지역 역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중심과 주변의 관계 양상이 제주도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미야코 제도와 야에야마 제도, 아마미 제도는 오키나와 본도를 중심으로 하는 琉球 왕조에 의해 주변화되었고, 琉球 왕조는 다시 일본에 의해 주변화되었기에, 어느 지역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 ‘바다 너머’의 ‘중심’이 지시하는 바가 달라진다. 또, 그 ‘주변화’의 양상 역시 균질하지 않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제주도 및 琉球·沖繩의 신화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 너머’라는 공간이 지니는 중층적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琉球·沖繩의 여러 세부 지역을 제주도에 대한 비교항으로 설정함으로써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외부’라는 개념어를 이용하여 ‘바다’ 혹은 ‘바다 너머’라는 공간이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바 있는데,<sup>49)</sup> 이러한 개념어는 두 지역

47) 이에 대해서는 정진희, 앞의 글(2008a)의 4장 1절 참조.

48) 위의 글, 4장 3절에서는 이를 ‘외부’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하였다. 조현설은 최근 제주 무속 신화에서 ‘외부’가 지니는 ‘이중적 외부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2009), 이러한 양상의 일면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49) 정진희, 『제주도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이는 입도녀·토착남 혼인 화소의 비교 고찰』, 『구비문학연구』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신화에 내재된 세계관의 구체적 양상을 세밀하게 드러내는 데 유효한 개념적 도구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내부’와 ‘외부’가 설정되는 다양한 층위(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인간과 신, 토착과 외래, 정치적 주변과 정치적 중심 등이 각각 내부와 외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를 전제하고 역사적 정황과 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얽히는 양상을 논의함으로써, 제주도 신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주변화’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섬 신화 일반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마을 공동체 신화학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중에서 제주도 신화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는 것은 당신본풀이 쪽이라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琉球·沖繩 지역에서도 ‘우타키’라는 전통적 성소를<sup>50)</sup> 중심으로 하는 의례와 신앙이 발견되고, 이와 관련되는 의례 가요 및 신화를 확인할 수 있다. 존재 양상이 유사한 신화가 양 지역에서 발견되는바, 이러한 신화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는 마을 단위의 신화가 향유되는 양상과 기능, 그 의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비교 연구에는 사실의 양상을 구체화하는 기초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을 단위의 신화는 원칙적으로 마을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먼저 당 및 우타키와 관련되는 신화의 양상을 개관하여 비교하는 일차적 작업이 면밀히 이루어져

50) 이에 대한 지역적 명칭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 통칭으로 사용되는 ‘우타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일차적 작업을 토대로 양 지역 마을 신화를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그 분류 결과를 비교하여 두 지역의 특수성을 짚어내야 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양 지역 마을 신화를 의례 및 신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신앙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琉球·沖繩 지역은 마을 공동체 신앙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바, 이 지역과의 비교는 제주도 마을 신화와의 비교항을 여럿 두어 마을 신화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적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를 ‘마을 신화학’의 성립이라 할 수 있다면, ‘마을 신화학’은 왕조 혹은 국가의 신화학과의 상호 발전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국가 신화의 발생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씨족의 신화가 부족의 신화로, 부족의 신화가 국가 신화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가 신화가 확립된 이후에도 자연 발생적 공동체인 마을을 단위로 신화가 전승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가 성립 이후의 마을 공동체 신앙 및 신화는 국가 신화가 일방적으로 강제되어서 전승되어 온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마을 신화가 국가 신화를 수용하여 변형된 것인가? 그도 아니면 새로운 마을 신화가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국가 신화의 성립과는 상관없이 마을 신화가 지속되어 온 것인가? 한편, 국가 성립 이후 새로 발생한 마을에서는 마을 단위의 신화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해결되어 마을 신화학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면, 왕조 혹은 국가의 신화학 역시 좀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琉球 왕조는 오키나와 본도에 정립해 있던 三山이 통일되어 이루어

진 국가이고 또 왕조 중심의 의례가 중앙집권화 확립의 주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조와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가 구체적 지역에 따라 다층적으로 나타나므로,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는 국가의 수립과 관련되는 마을 공동체 신화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왕권 혹은 국가 권력의 영향 아래 놓여 있던 마을 공동체 신화라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심도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제주도와 琉球·沖繩 지역의 마을 신화 비교는 두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주변화’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변화’를 주도한 ‘중심’의 종교 및 신화가 ‘주변’의 전통적인 마을 신앙 및 신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예각화하여 비교 고찰하는 연구 과제가 매우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 비교 연구는,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의 사례를 각각 고찰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지역적 사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일반론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런 점에서 ‘마을 신화학’의 정립을 염두에 둔 비교 연구는 비교라는 연구 방법론의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적절한 비교 과제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3) ‘巫俗’ 신화학

제주도의 신화는 이른바 ‘巫俗’으로 통칭되는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하지만 신화 전승 배경이 되는 생활 관습과 의례를 모두 ‘巫俗’으로 일반화해 버리고 말면, 그 내부의 다양한 결들과 차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를테면, 의례에서 구연되는 제주도 신화인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하는 것은 의



히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갈래 구분의 타당성, 갈래 간의 상관 관계, 형성과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아직 불충분하다. 근자에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단행본이 출간된바<sup>51)</sup>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 분야가 최근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신본풀이 각 유형이 제주도 토착의 것인가를 판별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조상신본풀이에서의 일월조상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도 그 온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sup>52)</sup> 때로는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가 중첩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양상과 원인에 대한 문제도 그 해결이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요컨대 ‘무속 신화’라는 이름 하에 통칭되어 온 신화들의 관계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琉球·沖繩 지역에서의 ‘성무담(成巫譚)’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琉球·沖繩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의 의례를 주관하거나 참여하면서 의례가요를 구연하기도 하는 이들을 ‘노로’<sup>53)</sup>라고 하며, 따라서 마을 단위의 의식요 및 그 의식요의 행간에 숨겨진 신화는 주로 이들에 의해 전승된다고 할 수 있다. 신병과 접신 체험에 의해 민간에서 일종의 무당 역할을 하는 ‘유타’<sup>54)</sup>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마미 제도 지역의 유타가 전승하는 몇몇 예외적 사례를 빼면, 유타가 구연하는 신화는 일정한 형태를 찾기 어렵다. 학습 과정을 거쳐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타에게

51)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52) 정진희, 앞의 글(2008a)에서 그 양상의 일부를 지적했으나(157-166면), 일반화에 이르기까지는 검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53) ‘노로’ 역시 대표적 통칭일 뿐이며,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운다. 한 지역에서 ‘노로’로 지칭할 수 있는 사제자들은 또 각기 다른 구체적인 사제명을 지닌다.

54) ‘유타’ 역시 구체적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다.

내린 신이 그러한 말을 하게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5)</sup>

그런데 후쿠다 아키라는 유타들은 각기 다른 성무 과정을 거치지만 ‘환영적 이계 편력 체험’이라는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체험담이 추상화되면서 보편적 무조 신화로 형상화되어 간다고 보았다.<sup>56)</sup> 신화의 발생과 유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라 할 만하며, 마을 단위 의례를 집전하는 사제자들도 의례 과정에서 신과의 접신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그들 사제자들의 노래 역시 이러한 신비 체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탐구될 여지가 있다. 유타와 노로는 공히 신비체험을 통해 신화를 형성하는데, 다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의례를 보장받은 노로는 그 신화를 의례를 통해 정제해 온 반면 조직 밖에서 개인적 영력만이 인정되어 온 유타의 경우 그러한 신화를 세습이나 전수의 과정을 거쳐 고정화시키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 위에 서면, 제주도의 사제가 노로나 유타 등으로 분화되지 아니하고 마을 의례와 개인적 기원을 모두 담당하는 ‘심방’으로 일원화된 것이 심방이 전승하는 본풀이 신화들의 다층적 성격의 원인일 수 있다는 추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심방은 학습해 온 마을 신화를 의례에서 구연하는 한편, 개인적 신비체험이나 접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화를 기존의 의례 공간에서 전개할 수 있을 터이며(이를테면 조상신본풀이), 혹 다른 지방에서 유입된 신화나 서사물들이 심방의 능력에 따라 기존 신화에 포함되어 확장될 수 있었을 것(이를테면 일반신본풀이)이다. 한 명의 심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신굿

55) 정진희, 앞의 글(2008a), 29면 참조.

56) 福田晃, 『무조신화의 성립-일본 奄美·沖繩의 전승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13, 1996 참조.

을 통해 다른 심방들에게 본풀이 구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바, 제주도 심방들이 정형적 본풀이들을 전승하게 된 것은 이러한 환경에 따라 고정적인 본풀이 레퍼토리가 정제되어 온 까닭이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琉球 왕조의 국가 의례 정비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사제자의 위계 분화, 유타에 대한 왕권의 탄압 등과 함께 제주도 심방에 대한 조선 왕조의 대응 및 심방 조직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琉球의 상황은 관련 류큐의 문헌을 통해 밝힐 여지가 많지만 제주도의 경우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반드시 비교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설을 세워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만용에 가까운 추론에 불과하다. 요는, 신화 발생 및 형성과 사제자(전승자)의 관계가 두 지역의 비교 연구를 통해 드러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무속’으로 통칭되는 신안적 습속과, 그것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신화 갈래와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추적하고 그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다면, ‘무속’적 의례와 관련하여 지속되어 온 동아시아 신화의 다각적 면모와 그 본질적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5. 메타 신화학적 과제와 담론적 확장 가능성

제주도의 신화와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를 비교하는 연구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권력적 배치 위에서 신화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못 중요해 보인다. ‘濟州’, 즉 ‘바다를 건너 달은 고을’이라는 축자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제주’라는 명칭에는 한반

도를 ‘중심’으로 삼아 제주도를 ‘주변’으로 전제하는 중심의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그러한 명칭은 중심에 대한 주변으로 자리해 온 ‘제주’의 정치적 위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한다.<sup>57)</sup>

중심과 주변의 권력 관계에서 주변에 배치된 지역의 신화는 종종 중심의 시각으로 그 성격과 본질이 부여되곤 한다. 제주도 신화가 한반도 신화의 ‘원형’, 이른바 ‘우리 민족’ 신화의 원형으로 파악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반도 신화의 ‘古形’ 혹은 ‘原形/原型’으로서 제주도 신화의 가치에 착목하는 것은 제주도 신화의 의의를 한반도 신화와의 동질성이라는 맥락에서 찾는 것인바, 여기에는 한반도 신화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제주도 신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종의 ‘식민주의’가 그 근저에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주변의 신화를 중심 신화의 고행 혹은 원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경향이 琉球·沖繩 신화에 대한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일본 민속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는 이하 후유(伊波普猷)라는 걸출한 오키나와 출신 연구자-이하 후유는 이른바 ‘오키나와학’의 태두로 불리는 인물이다-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신화를 포함한 오키나와 민속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일본의 원형’으로서 오키나와 및 그 민속의 가치를 발견하려 하였다.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된 琉球와 일본이 ‘同祖’라고 하여 그 동질성을 주장하되, 琉球·沖繩의 민속 문화를 ‘古形’으로 상정하여 그 ‘후진성’을 은연 중에 드러내는 학술적 전략은, ‘제국 일본’의 근대 학문에 내재된 식민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와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는 근대적 학문의 전

57) 이러한 권력 관계의 폭로는 조동일, 앞의 책(1997b) 참조.

개 위에서 이루어진 신화 연구에 대한 메타적 연구라는 차원에서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심’의 ‘주변’에 대한 연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식민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그 관계대로 인정하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주변’의 ‘탈주변적’ 연구 시각을 형성하는 데에도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에서 ‘오키나와’는 ‘중심’과 ‘주변’의 권력적 배치 문제,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와 탈식민 문제와 결부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sup>58)</sup> 제주도와 琉球·沖繩 지역의 신화 연구사에 대한 메타적 비교 연구는, 이러한 담론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만을 언급해 둔다.

## 6. 맺음말

제주도 신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琉球·沖繩 지역 신화와의 비교 연구는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서 지역이면서 동시에 주변화의 역사를 겪어 온 두 지역 신화의 비교는, 이러한 조건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신화에 대한 다각적 이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지역 신화는 ‘민족 또는 국가 이전의 신화’ 뿐만 아니라 ‘민족 또는

58) 이러한 연구 시각 및 경향에 대해서는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4 및 임성모, 『우치난추의 눈으로 본 오키나와』(특집 동아시아 속의 ‘변경’), 『역사비평』85, 역사문제연구소, 2008 겨울 등 참조.

국가 이후의 신화'의 실상과 관련 양상을 논의하는 데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비교항을 일본 제국의 식민지 혹은 '내부 식민지'가 된 조선과 대만, 琉球 혹은 沖繩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근래에 다시 만든 민족국가신화'의 동아시아적 발생과 전개 양상을 추적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sup>59)</sup> 이를 위한 연구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제주도 신화와 琉球·沖繩 지역 신화와의 비교 연구는 두 지역 신화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신화 일반론의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발전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그러한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와 과제를 확인해 본 것에 불과하다. 좀더 확장된 시야의 비교 방법론과 연구 과제가 속속 제기되어 해결되고, 이를 토대로 제주도 신화를 포함한 동아시아 신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59) '민족 또는 국가 이전의 신화', '민족 또는 국가 이후의 신화', '근래에 다시 만든 민족국가신화'라는 신화의 분류와 그에 따른 세 신화학에 대해서는 조동일, 『세계 속의 한국신화』,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7-일반이론 정립』,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참조.

## 참고문헌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_\_\_\_\_, 『東亞細亞 神話 比較 研究』, 『한국민속학』29, 민속학회, 1997.
- \_\_\_\_\_,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함흥, 제주도, 오키나와, 나가사키의 창세신화를 중심으로」,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 \_\_\_\_\_,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미륵과 석가의 대결 신화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 \_\_\_\_\_,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초공본풀이』와 엄미 『사송검』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10, 국립민속박물관, 2002.
- \_\_\_\_\_, 「제주도와 아이누의 구비서사시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 \_\_\_\_\_, 「제주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6, 2003.
- \_\_\_\_\_, 「제주도와 층승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2008.
- 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 김화경, 「한·일 신화의 비교 연구-일본 서남 제도의 일광 감응 신화를 중심으로 한 고찰」, 『구비문학연구』1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 박종성, 「한국 창세신화와 일본신화」,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福田晃, 「무조신화의 성립-일본 奄美·沖繩의 전승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13, 1996.
- 서대석, 「한국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회, 1992.
- \_\_\_\_\_, 「구비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과제」,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학회, 1994.
- \_\_\_\_\_, 「동아시아 영웅신화의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11, 한국구비문학학회, 2000.
- \_\_\_\_\_,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앤더슨(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 이경애, 『제주도와 아이누의 영웅서사시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4, 2000.
- \_\_\_\_\_,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무속서사시 비교』, 『탐라문화』34,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9.
- 임성모, 『우치난추의 눈으로 본 오키나와』, 『역사비평』85, 역사문제연구소, 2008.
-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4.
- 정진희, 『류큐 왕조의 아마미코 신화와 현대 구비전승』, 『국어문학』42, 국어문학회, 2007.
- \_\_\_\_\_,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류큐 열도의 미로쿠 설화와 민속적 배경』, 『류큐 열도를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 문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8.
- \_\_\_\_\_, 『제주도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이는 입도녀·토착남 혼인 화소의 비교 고찰』, 『구비문학연구』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 \_\_\_\_\_, 『양속기(兩屬期) 류큐(琉球) 개벽신화의 재편과 그 의미』, 『아시아문화연구』16, 경원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 조동일, 『국사를 넘어선 역사 이해의 열린 시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_\_\_\_\_,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_\_\_\_\_, 『세계 속의 한국신화』,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7-일반이론정립』,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 \_\_\_\_\_,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종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최원오, 『신화·서사시 연구의 반성과 전망』, 『구비문학연구』15, 한국구비문학회, 2002.
- 카스텔(정병순 옮김), 『정체성 권력』, 한울아카데미, 2008.
- 한창훈, 『제주도 무가 연구의 검토와 전망』, 『시가와 시가 교육의 탐구』, 월인, 2000.
- \_\_\_\_\_,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2009.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慶世村恒任, 『宮古史傳』(新版), 富山房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08.



稻田浩二·小澤俊夫 編, 『日本昔話通觀』26, 同朋舎, 1983.

遠藤庄治·福田晃·山下欣一, 『日本傳説大系』15, みずうみ書房, 1989.

佐渡山安公, 『シャーマンが語る創世神話<宮古島>』, 『奄美沖繩民間文藝研究』  
13, 奄美沖繩民間文藝研究會, 1990.

眞下厚, 『神婚神話傳承の形成—宮古漲水御嶽傳承を中心に』, 『聲の神話』, 瑞木  
書房, 2003.

沖繩歴史教育研究會, 『琉球·沖繩史』, 東洋企劃, 2001.

平良市史編纂委員會 編, 『平良市史—第九卷 資料編7(御嶽編)』, 1994.

Abstract

Prospect for Mythology of Peripheral-Islands: Recommendations  
for Further Comparative Study on Myths of Jeju Island

Jeong, Jin-Hee\*

The myth of Jeju-island and Okinawa is a subject worthy of comparative study. In spite of a lot of precedent study, the comparative study is not successful as a mythology. I think the fallacy of precedent study is due to lack of knowledge or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Okinawa and misapprehension about the context of Okinawan myth. The more understanding about history, culture and religious folklore of Okinawa, is indispensable for successful comparative study.

Jeju and Okinawa are similar in geographic environment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First, they are islands. And second, they had been merged into dynasty and had been located as a periphery by the dynasty government from over the sea. From these similarities and features, I suggest that the comparative study must be done as a mythology on island, on village, and on shamanism. Moreover, I suggest the comparative study about the center's studies on myths of periphery, in order to reveal the colonialism in them.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se comparative studies will show the features of myths' of each island, and construct the mythology of periphery at the same time.

---

\* Ajou University

**Key Words**

myth, comparative study, Jeju-island, Ryukyu, okinawa, mytholgy on islands, mythology on village, mythology on shamanism, meta-mythology, colonialism, center, periphery

**교신 : 정진희**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기초교육대학 319-2  
(E-mail : jajung1@ajou.ac.kr 전화 : 016-717-1409)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30.

계재확정일 2010. 08. 10.